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제940호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쏘아올린 ‘대학자율·민주화’라는 작은 공

명복 기리는 추모 현수막 학내 곳곳 설치돼
교수회장, “대학자율화 위한 개선안 제시할 것”

“아빠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산업화 시대 도시 빈민층의 좌절과 애환을 담은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한 대목이다. 아들 영호가 무기력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향해 별은 말이다. 그 뒤 아버지는 공장 굴뚝 위에 올라 종 이비행기를 날리고 지상으로 떨어진다. 뒤집을 수 없는 가난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었다.

소설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취업률을 앞세운 평가와 사업단 지원 등 재정과 돈으로 대학을 돈으로 통제하는 지금, 몸을 태우는 저항 끝에 굴뚝 위에 올라서 대학자율·민주화를 쏘아올리고 악당이 되기를 거부한 아버지가 산화됐다.

8월 17일 오후 3시 부산대 본관 4층에서 故 고현철(국어국문) 부산대 교수가 투신했다. 총장 간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오랜 저항 끝에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다.

부산대는 끝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 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고 교수는 대학자율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는 총장 직선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희생한다고 유서에서 밝혔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부산대 내의 학내 여론은 물론이고 지역·중앙 언론도 대서특필했다. ‘교육부 ‘총장 간선제’ 압박, 부산대 교수 투신 참극 불렀다’, ‘누가 고현철 교수를 죽였을까’, ‘고현철 교수가 죽음

으로 알리려 했던 불편한 진실’ 등 수많은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학내에도 고 교수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교수회, 드일학과·중어중문학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진실 과정의 위한 제주 교수 네트워크 등이 고 교수의 뜻에 공감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

3일 뒤 20일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연합회(이하 거국련)는 총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거국련은 “직선제 총장선출 규정으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임명 제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에 참가한 우리 대학 김철수(전산통계) 교수회장은 “대학선진화 정책에 가려 잠시 잊혀졌던 대학자율성 회복의 불씨를 당겼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고 교수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역설했다. 그는 이어 “대학자율화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총장직선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차차 개선방안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산업화 시대 노동과 인권에 대한 화두를 던져 실질적인 운동을 이끌어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고 교수가 쏘아올린 대학자율·민주화라는 작은 공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민 기자



‘우리 학교는 지금 공사중’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문 앞에서 여름방학동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9월 말 완공 예정이며 원료 후 비기림막이 설치돼 우천시 학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규 기자

서둘러 수강·입주신청하는 학생들… ‘시스템 오류’에 막히다

학생생활관(관장 김봉애)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과 정보통신원(원장 이상준 컴퓨터공학 교수)이 지난 8월부터 이틀간 일어난 전산상의 문제로 입주신청과 수강신청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2면

19일 학생생활관측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입주실 신청에 불편을 드린점 양해바라며,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지난 18일 10시에 진행될 생활관 입주 신청이 프로그램의 오류로 약 2시간 가량 지연된 것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 담겼다. 21일 정보통신원은 학교 메인 홈페이지

에 ‘지난 8월 19일 9시부터 15분간 수강신청에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접점과 네트워크 보안장비의 과부하로 인한 문제로 동시접속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김해건 기자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오늘 11시 아라뮤즈홀에서 거행

학사 451명·석사 229명·박사 25명
우수논문상 및 총장상 수상 예정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5일 11시에 아리캠퍼스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학사 451명, 석사 229명, 박사 25명 등 총 705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수여받는다.

총장상 및 표창, 학장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논문 △교육대학원(석사) 박생(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경영대학원(석사) 오창일(경영학과 마케팅관리전공) △행정대학원(석사) 한혜숙(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표창장 △교육대학원(석사) 윤영식(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총장상 △박윤귀(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학장상 △양지은(경영학과) △조아영(언론홍보학과) △김은주(경영학과) △김하나(관광경영학과) △이종률(회계학과) △손연희(무역학과) △김동유(경제학과)

△현소라(관광개발학과) △박선주(경영정보학과) △강승훈(경영학과·아) △고지수(윤리교육과) △송현경(생물학과) △강병규(전기공학과) △박진서(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정민혜(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정민혜(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이현경(미술학부 한국화전공) △박윤귀(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김은주(경영학과) △김하나(관광경영학과) △이종률(회계학과) △김동유(경제학과)

심소연 수습기자

장학금 릴레이 캠페인 진행… ‘아라기부천사’ 모집

‘꿈과 희망의 장학금 릴레이’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 지난 18일부터 허향진 총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번 릴레이에는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장학금을 발전기금으로 모금하는 기부캠페인이다.

기부 방법은 최초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고 그 기부자가 후원할 수 있도록 앞선 기부자가 홍보까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를 ‘아라기부천사’로 부르고 1004명 참여를 1차 목표로 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기금 모금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접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장학금 기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754-8251~3)으로 문의하면 참여할 수 있다.

김해건 기자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 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0 - 1 0 2 0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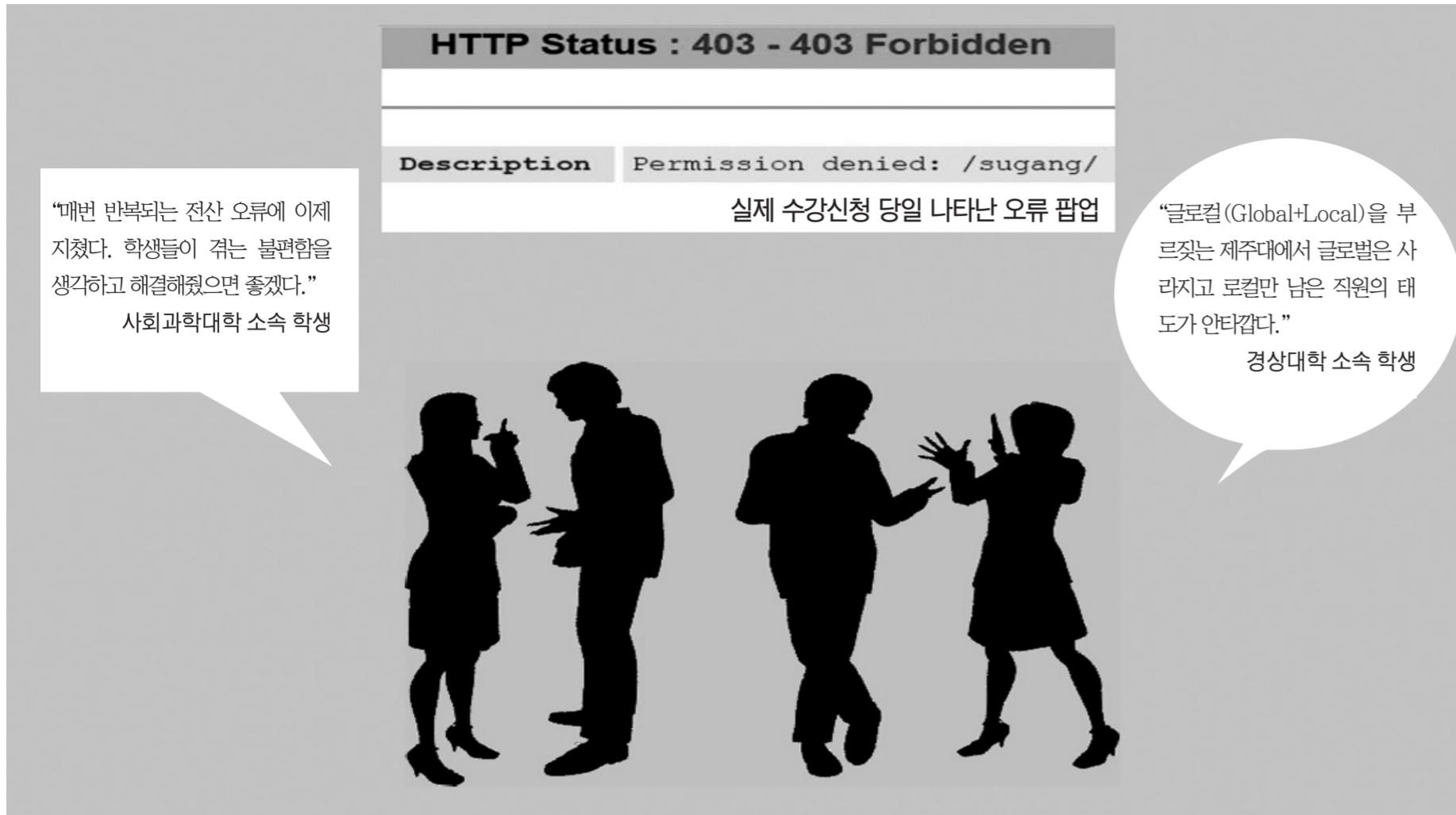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교 102호)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소리가 난 후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십시오. 빠~~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전산시스템 오류로 홈페이지 뚫… 학생들은 또 격분했다



특별 기획 매년 반복되는 전산시스템 마비, 무엇이 문제인가.

수강신청, 기숙사 입주 신청 등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엔 오류가 생겨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사회과학대학 4학년인 한 학생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수없이 많다”며 “매번 다른 학교 측의 말을 듣다보면 어이가 없어 쓴 웃음을 짓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수강신청 오류로 학생 대부분 피해 입어

수강신청을 경험해본 학생들은 각종 오류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입을 모운다. 경상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수강신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pc방에서 밤을 썼지만 접속조차 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어쩔 수 없이 시간표가 특정요일에 몰리게 됐는데 학교를 다닐 생각에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SNS상에서 “수강신청 홈페이지 오류로 학점이 날아갔다”, “매번 반복되는 문제에 화가 난다”, “서버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우리 학교의 수강신청 오류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1년에는 몇몇 학생들의 수강신청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2014년에는 학사·행정 데이터베

이스 암호화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해 시간이 지연됐다.

이 문제들은 본지 857호와 916호에서 지적했지만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오류들로 학생

오류를 발견한 정보통신원은 잠시 동안 보안시스템을 해제 했고 수강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는 이어 “전 날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학생들에게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강·입주신청 오류, 고민만 늘어난 학생들

서버문제가 아닌 예상치 못한 시스템에서 오류 발생

철저하게 준비했으나… 학생들에게 미안할 때

들은 매번 수강신청 기간에 피해를 입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들은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정보통신원의 공지가 왜 없는지의 궁금증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강신청기간에 무슨 오류가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정보통신원의 관계자는 “서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보안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안시스템이 과부하 걸리던 15분간은 접속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됐었다.

◇생활관 입주신청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2015년부터 제주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의학전문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는 학생생활관 입주 신청 프로그램 오류에 불만을 느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산 오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입주 신청, 블레이트 시간 때 나타나는 오류로 인한 자연으로 불편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게시글은 본 나머지 학생들은 동의를 표하는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다.

A씨는 “기숙사 신청을 하기 위해 수업 도중 교수님께 양해를 구했다”며 “하지만

“글로벌(Global+Local)을 부르짖는 제주대에서 글로벌은 사라지고 로컬만 남은 직원의 태도가 안타깝다.”

경상대학 소속 학생

심층 인터뷰 곽호영 컴퓨터공학과 교수

문제 해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전혀 예상 못한 시스템 오류에 대해
학생들 이해와 수긍 필요해



매번 반복되는 수강신청오류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곽호영 교수를 만났다. <편집자 주> ◇학생들은 매번 수강신청을 할 때 “서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우리대학의 현재 수강신청서버는 문제가 없다. 수강신청 서버를 도입한 이후 서버가 다운된 적이 한번도 없다. 수강신청 서버도 따로 존재하며 학내 구성원들이 모두 이용 가능한 만큼의 용량도 가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타 대학에서는 부분수강신청제도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우리대학도 부분수강신청제도를 과거에는 도입 했었다. 이 때 제도는 4학년에게만 국한돼 있는 일종의 특권이었다. 모든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4학년에 대해 학생들은 불만을 갖게 됐다. 특히 교양을 많이 수강하는 1학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였다.

물론 관리자의 서버관리 문제 등이 원인일 때는 정보통신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 예상치 못한 기계의 오류 발생 등이 원인일 경우 학생들의 이해와 수긍이 필요하다.

김해건 기자

직원 ‘적반하장’ 태도… 이게 최선입니까?

오류 문의에 전화 응대 불친절

입주신청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생활관 A직원의 불친절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19일에 벌어진 일은 방배정시 3명 이상의 학생이 원료되면 작동이 멈춰야 할 시스템이 중복신청이 허용돼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다. 데이터가 꼬이면서 방에 정해진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 가능해졌다. 결국 정보통신원은 중복신청자에게 전화해 문제를 해결했다.

강병근 학생생활관 행정실장은 “전산시스템오류로 입주신청에 불편을 느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생활관 학생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 죄송함을 표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보통신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입주신청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를 받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김해건 기자

SNS상에서 “문제 상황에서 이유를 묻기 위해 생활관에 문의를 하면 짜증을 내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오류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해 당황스러웠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이런 글들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은 지속적인 직원의 태도 문제에 대해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김봉애(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학생생활관 관장은 “직원의 태도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죄송하다”며 “철저한 직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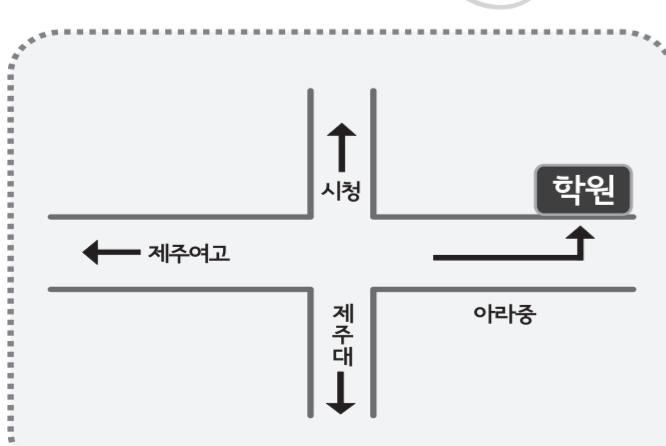
운전면허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 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 셔틀 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5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1주년을 맞아 제35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2.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nu.ac.kr로 제출해야 함.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출입논문 응모 가능
※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3.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기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4. 접수마감 : 2015년 11월 20일(금) 18:00까지
5.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6.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2월 2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은 진실을 담아내고 정론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예비 언론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제주대신문에서 불태우십시오.

제63기 수습기자 모집

1. 입사지원서 접수

- 1) 대상: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 2) 기간: 2015년 8월 18일(화)~9월 23일(수) 오후 6시까지
- 3)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주대신문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

2. 전형방법

- 1) 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 2)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3. 혜택

- 1)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2) 협직 기자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3) 중앙 언론에서 활용하는 편집시스템 통한 첨단 편집 교육
-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 5) 취재수당 및 원고료 수시 지급

4. 문의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백승규 편집국장(010-9785-5221)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졸업생 절반 이상 A학점... 학사제도 바뀐다

간호·수의·의학과 외 내년부터 B- 이상 성적 재이수 불가

거점대 중 A학점 비율 서울대 뒤이어 두 번째로 높아

<2014년 기준>

방학동한 학기 중에 못한 취미생활도 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던 생활대 소속 3학년 A씨는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오랜 만에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2016년 달라지는 학사제도 안내'라는 팝업 창이다.

내년부터 C+이하 성적의 과목만 같은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불가피하게 B- 맞은 과목 두 개정도가 있어 다시 수강할 요량이었는데 계획을 다시 세우자니 막막했다. A씨는 "학점인플레가 진짜 심각한가?", "A~B 학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학점을 맞은 학생들이 과연 재이수를 할까?" 등 의문을 가졌다.

A씨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실제 관련 데이터는 놀라웠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제주대는 2012년부터 3년간 졸업생 성적 백분율 평균 점수가 76.2~88.97~89.19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같이 A학점(9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체 졸업생의 51.9%(거점대학 3위)~51.1%(3위)~54.2%(2위)를 차지했다. 반절이 넘는 졸업생이 A-이상의 학점을 받고 졸업한 셈이다.

더불어 학사과의 재이수 현황 분석에 따르면 고득점에 속하는 A+~B- 학점을 받은 학생 중 일부가 재이수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학사과는 학점 인플레 방지와 올바른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이수 관련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 평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같은 달 15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C+이하 성적만 재이수 가능하다'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또한 'F 또는 U 학점을 제외하고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다만 간호학과, 수의학과, 의학과는 새 개정안에 제약

받지 않고 기존대로 재이수할 수 있다.

학사과 고영종 수업팀장은 "2014년 졸업생 중 A학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국 거점대 중 1위일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이수 관련 학칙이 우리 대학만 예외적으로 없다"며 학적 개정의 근거를 밝혔다. 실제 전국 거점대 중 우리 대학만 재수강 관련 규정이 없었다.

전국 거점대들은 평균적으로 B~C+ 이하 학점만이 재이수 할 수 있다. 그 중 재이수 시 학점의 상한선을 정해 제도를 강화한 곳은 10곳 중 6곳으로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부분 시행) 등이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저학년의 경우 이미 내용을 다 아는 선배가 재수강하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오히려 강화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고학년의 경우, 군입대나 개인 사정으로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낮은 학점을 맞은 후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재수강할 시 불이익이 온다면 불만을 표했다.

전지민 기자

4년간의 마침표... 앞으로의 첫걸음

의류학과 예비졸업생 35명 제작

작품 재해석하는 '오마주' 선보여



전시회에서 팀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를 재해석한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의류학과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박물관 1층과 3층 로비에서 학과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제18회 졸업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박물관 안에는 색다르고 영감을 가질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의류학과 예비졸업생 35명의 예비 디자이너가 제작했다. 예비 디자이너는 6가지의 주제와 3가지의 장르를 담아 패션작품을 선보였다.

전시회의 테마는 오마주이다. 작품들은 기존의 발표된 영화, 디자이너, 건축양식, 20세기 패션 스타일로 활용됐다. 예비 졸업생들은 색다른 시각으로 기존의 작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오마주를 표현했다.

전시회 안에는 톰브라운, 로맨틱한 1950년대 패션, 웨딩, 한복, 갈옷, 영화감독 팀버튼, 세계의 건축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 등의 작품으로 선보였다.

예비 디자이너는 이러한 작품들을 재해석하면서 젊은 디자이너들의 감각으로 볼 거리를 더했다.

심소연 수습기자

KOICA제주센터 설치 협약

제주대·제주도·국제협력단(KOICA)은 지난 21일 제주도청에서 우리 대학에 KOICA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제주센터)를 설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센터는 도민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교육 및 새로운 ODA 사업 발굴 정책을 시행한다. 또 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파트너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봉사단 사업을 통칭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FK)'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KOICA는 앞으로 2년 동안 제주센터에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국제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기업과 기관의 참여 지원 및 ODA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역 사회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ODA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이로 인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지역 인재와 기업의 ODA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규 기자

"사익보다 공익, 진정한 리더가 되길"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사

오늘 제주대학교에서 영예로운 박사, 석사, 학사 학위를 수여 받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장과 희생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학부모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를 찾아 주신 내외국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졸업생들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졸업은 학업의 한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전환기에 직면한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이끌 것인가, 낙오하고 퇴보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제 졸업과 동시에 격변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와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은 모든 힘의 근원이며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동안 제주대학교에서 배우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교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가장 보람 있게 보낸 사람입니다. 이곳 아라칸퍼스에서 짚음을 불태우며 열정을 바쳤던 학문과의 뜻 깊은 만남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미래의 삶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역사의 긍정적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사회로 도약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선배들이 성취해온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더욱 인간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생명과 사랑이 매몰된 황량하고 경체된 사회로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각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 낼 때만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든 창조가 고통의 산물이듯, 바람직한 모든 성취는 고난의 대가인 것입니다. 성숙하고 인간적인 우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나보다는 남을, 사의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관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긴 항로는 때로 풍랑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앞에 실패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

취들은 결코 '고난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고난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었음을 기억하시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젊은 세대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제주대학교의 동문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모교에 대한 열정을 더욱 더 크게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라칸퍼스에는 지난 시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토론의 열기가 가득 찾던 강의실, 범듯도록 공부에 열중했던 도서관,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정,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이곳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곳을 떠나지만, 여러분이 바로 제주대학교의 미래이고, 제주대학교의 앞날은 여러분들의 모교에 대한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취가 곧 제주대학교의 성취이며 성장의 동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국인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제주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새 비전을 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 대학으로의 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결집하여 교육역량과 연구력을 더 끌어올려 글로벌 미래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둘러싼 여건들이 급변하면서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를 깎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만,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애정 없이는 대학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주대학교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넘고 글로벌 명품대학으로 도약해 지역사회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들도 모교가 더욱 높이 날아오르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향진

2015학년도 제2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임정명(영어영문학과)
조교수-미국소설
△학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박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최종 학위 논문명 : Henry James의 이상적 삶의 비전 - 현실과 상상력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장창은(사학과)
조교수-한국고대사
△학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박사 :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한국고대사
최종 학위 논문명 : 新羅 上古期 高句麗 關係와 政治勢力 研究



조장희(경제학과)
조교수-응용미시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수학
△석사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최종 학위 논문명 : 한국 소매업의 현대화와 구조변화에 대한 실증연구



권유성(국어교육과)
조교수-현대시
△학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시)
△박사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시)
최종 학위 논문명 : 1920년대 '조선적' 서정시의 창출 과정 연구



최대희(국어교육과)
조교수-국어사
△학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석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박사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최종 학위 녺문명 :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다 구조 연구



김효정(음악학부)
조교수-현악
△학사 : 한양대학교 관현악과 바이올린
△석사 : Michigan State University
△박사 : University of North Texas
최종 학위 논문명 : Combining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ance and Recent German Techniques in ISANG YUN's Kontraste: Zwei Stücke Fur Violin Solo(1987)



김대영(교육학과)
조교수-교육과정
△학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과정
△박사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urriculum & Instruction Curriculum Studies
최종 학위 논문명 : A History of Curriculum Thought in South Korea



이소영(사회교육과)
조교수-법학이론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형법(법학원리)
△박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원리
최종 학위 논문명 : 포스트모던적 사유의 법학적 수용 -법사회사와 법문학의 영역을 중심으로-



오승희(전산통계학과)
조교수-생물통계학
△학사 :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석사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생물통계
△박사 : University of Pittsburgh Biostatistics Genetics
최종 학위 논문명 : Effects of Missing Value Imputation on Down-Stream Analyses in Microarray Data



천지연(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식품가공
△학사 :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부 영양자원학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식품학
△박사 : 건국대학교 축산식품생물공학과 식품생물공학
최종 학위 논문명 : Physical Properties of Molecular Inclusion Complexes of Essential Oils with beta-Cyclodextrin and Formation of Multiple-Layered Liposomes by Electrostatic Deposition of Biopolymer



이정훈(전자공학과)
조교수-컴퓨터통신시스템
△학사 :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공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공학 무선통신
△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무선통신
최종 학위 논문명 : Interference management via opportunistic user selection i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s



홍예주(초등교육과)
조교수-체육학(한국무용)
△학사 : 상명대학교 체육학과 체육학
△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영광스러운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박사 학위

법학

강창보 법학박사
장사법상 시한부 매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현 법학박사
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서세걸 법학박사
한·중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행정학

김명범 행정학박사
정책의 역동성과 진화과정 연구
-제주해군기지 정책을 중심으로-

고인종 행정학박사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서영숙 행정학박사
사회적 자본과 문화성향이 개인의 기부지속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정철 행정학박사
크루즈 모항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한·중·일 주요항만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경영학

황만종 경영학박사
항공사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과의 관계에 서 자아표현성 및 FSC/LCC의 조절 효과

관광경영학

현계담 관광학박사
호텔 직원의 핵심가치 인식, 혁신행동,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 연구

농학

강영식 농학박사
The Environmental Impact of Naturalized Plant Inhabited to Islet near Jeju-Do

농업경제학학

현명택 경제학박사
제주지역 농지임대차 시장의 경제적 특성 분석

해양생명과학

송진우 이학박사
양어사료 내 비타민 C 대체제로서 감귤작즙박 이용성에 관한 연구

사나즈 코즈래비 이학박사
Nutritional, 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studie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and red sea bream (*Pagrus major*) fed marine protein hydrolysates

차지훈 이학박사
Nutritional and immunological studies of marine fish fed *Bacillus* spp. Supplemented diets

해양시스템공학

이재일 공학박사
파라메트릭 배열 기반 초음파 시스템 개발 및 응용

의류학

홍지운 이학박사
바디스원형의 설계 및 착의평가 개선 연구
-20대와 30대 여성의 체형분석을 기초로-

체육학

김신 체육학박사

시간대별 운동프로그램이 비만 초등학생의 대사성질환 위험요인과 BDNF 관련인자에 미치는 영향

윤상택 체육학박사

승마 장애물 비월에서 도약거리와 높이에 따른 기승자세의 운동역학적 분석

에너지화학공학

조진오 공학박사

저온 플라즈마-촉매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CO 동시제거 특성 연구

트린카르 흥분제

Combination of plasma with catalysis and adsorption towards enhancing the decomposi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의학

자하드 만주르 의학박사

Orientia tsutsugamushi 감염시 속주방 어능에 미치는 UNC93B1 단백질과 툴 유사수용체 13의 역할에 대한 연구

교육학

김창건 교육학박사

科學的 探究活動과 멘토제 및 科學敎授方法에 대한 初·中學校學生, 教師의 認識

고용철 교육학박사

자기주도적 과학탐구 활동이 중등학생의 메타인지, 과학의 본성 및 과학자의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동물자원과학

김남영 농학박사

제주마 모색 분포 특성과 얼루기 모색의 분자유전학적 연구

석사 학위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정단

영어영문학과
박은선 장미순 현희순

사학과

강봉석 송민경 전은자 강은정 변성훈

독일학과

안소향

행정학과

진유경 강권오

언론홍보학과

김용국

경영학과

이영 양성목 라정임

관광개발학과

황려

무역학과

라행

농학과

현동희 권순화

원예학과

헤라쓰 무디안셀 라지 지라파 오스틴

생명공학과

안철수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로빈 구에바라 팜플로나레니엘 수마구이

동물생명공학과
고미정

지구해양과학과
안소정

해양생명과학과
김준성 김희주 이성도 노스워시 로날드 조지

환경공학과
고태웅 허윤용

해양시스템공학과
라기철 현종우

화학과
양수경 양승혁

식품영양학과
조봄미 김청이

전산통계학과
강대진 송다영 김경원

의류학과
송수민

체육학과
전준범

식품공학과
문애경 김재원

컴퓨터공학과
왕건

에너지융시스템학부 기계공학전공
김기봉 여호

에너지융시스템학부 에너지화학공학전공
이바로

에너지융시스템학부 전기공학전공
레탄등

의학과
김상희 김지영 문재철 임영협

수의학과
박창남 임설화 양정진 한경옹

음악학과
김보람

풍력공학부 풍력기계시스템전공
강동범 주범철 김다희

풍력공학부 풍력전기·제어시스템전공
고승운 이도현

해양기상학협동과정
오유정

동물자원과학과

김종철

언론홍보학과

김용국

경영학과

이영 양성목 라정임

관광개발학과

황려

무역학과

라행

농학과

현동희 권순화

원예학과

헤라쓰 무디안셀 라지 지라파 오스틴

생명공학과

안철수

지리교육전공
박샘

수학교육전공
강은정 권주희 안익찬 양은정

생물교육전공
박선미 김기람 박수곤

영양교육전공
최희선 오미연 강은정 박은아 오지현 정민정 한아름 흥인선

체육교육전공
김진우 정상수 남희광 김병길 곽도규 이영주 김선옥 김경오 김천권 양영효

미술교육전공
이문정 전수현 양효주 부지혜 강지현 문정원

음악교육전공
최재광 허정실 장수초 김민정 강내하 부지연 곽정미

초등국어교육전공
장혜순 문희정 임은진

초등과학교육전공
문승환 고은혁 김지훈

초등음악교육전공
양수영 박나은 한유진 송명아

초등미술교육전공
김기영 한주연 허영순 김경숙 고상아 진영지 고주연

초등실과교육전공
이영찬

초등영어교육전공
오인생 강순여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진우

인사관리전공
정은경 한봉금 김민호 김기홍 강승연 흥태욱

마케팅관리전공
오창일 고현주 김주환 부창학 양윤철 양철호

회계학전공
김영준 강진노

관광경영학전공
장원석

부동산경제학전공
강태원 이상중 이우준

경영정보학전공
김성준 김우진 최영남

관광개발학전공
김윤자

일어일문학과
정재철 흥성석 이현미 고희경 한민정 고유라

독일학과
고은호 김기현 박현근 양소은 김은필 김미현 오영은

일어일문학과
정재철 흥성석 이현미 고희경 한민정 고유라

김은호 김주리 박승우 고은정 오지향 유설미 강희진

중어중문학과
박화영 조은재 양혜선 김다영 김지현 김희조 문슬기 박지윤 서이랑 흥단비 이소이최아람

사학과
김철석 장원준 김선강 부경남 오수현 양지은 박성우 양은지 부미정 최예지

철학과
양은택 김미나 오충용 전하정

인사관리전공
김진숙 혼상국 강태영 현종협 고권진

사회복지전공
김태원 변종호 강동호 한혜숙 김태호

사회복지전공
김태원 변종호 강동호 한혜숙 김태호

사회복지전공
김태원 변종호 강동호 한혜숙 김태호

마케팅관리전공
김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담는 시를 쓰고 싶어요

아라 초대석 <16> 장한라 시인

'울림 있는 혈자리마다 요망지게 채워지 쿠다.' 어느덧 누구보다 더 제주인스럽게 제주어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 긴간 인생의 길을 돌아, 늦은 나이에 다시 펜을 쥐고 새로 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인 장한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제주와 말을 사랑하는 '즐거운 선택' 시집의 저자 장한라 시인.

◆제주로의 '즐거운 선택'

함양에서 시인의 꿈을 키워가던 그녀. 8년 간의 함양 생활은 또 다시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게 했다. 문득 '이곳에 서서 나의 충분히 나의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그녀. 제주에 오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3년간 올레길을 걷고 나서 돌아보니 제주공항에서 밭을 빼기 힘들어 제주에 계속 머물 여지를 찾았다고 한다. 숙명여대 대학원을 재학 중이던 그녀는 돌연 제주대 대학원으로 동지를 옮기면서 끊어버리며 상실감에 헤탈한 상태에 빠졌고 시의 변두리에서 머무대며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어린이집, 다문화가정교육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도시를 떠나 지리산 자락 함양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주한 숲에서 다시금 시인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우연과 필연의 경교한 짜임 속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서도 꾸준히 펜을 놓지 않고 '가고 싶은 시집, 사고 싶은 시집' 이런 부제 아래 시를 써내려 갔다는 그녀. 당시 그녀가 영문학과를 전학 이유도 영문과에 가면 시를 더 잘 쓴다는 풍문에 이끌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돌연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녀가 써왔던 전부를 끊어버리며 상실감에 헤탈한 상태에 빠졌고 시의 변두리에서 머무대며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어린이집, 다문화가정교육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에서 오는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도시를 떠나 지리산 자락 함양으로 이주하게 된다. 그곳에서 마주한 숲에서 다시금 시인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한다.

"삶의 흐름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되짚어보게 됐어요. 잊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시에 대한 열정을 찾게 됐고 그렇게 40대에 다시 잊고 있었던 시인의 꿈을 키우게 됐어요."

주대 도서관을 자주 찾는 편인데 음악을 들으며 '광수생각' 등 글이 없는 책을 보며 모티브를 얻는다고 한다. 때론 자전거를 타고 목적 없이 떠나거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만남과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글귀가 떠오를 때가 많다고 한다.

"모든 시인들의 고민이겠지만 첫 문장을 써내려가 같 때가 가장 어려워요. 잡다한 생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언어, 군더더기를 모두 없앤 보석 같은 언어만을 처음 써내려 가야만 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첫 문장만 풀리면 모두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메모지를 가까이 한다는 그녀. 긴 문장을 쓰기 보단 짧은 단어를 이미지화하고 글을 쓰고 나서 여러 번 보고 고친다고 한다. 실제로도 원고와 청탁을 받아 원고를 보내놓고 다시 최종본을 고쳐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 등 짐표, 마침표 이런 소소한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그녀의 시를 대하는 태도를 염볼 수 있었다.

"시를 쓰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시집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시를 읽어보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게 시를 쓰는데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주제에 보이는 것들의 형상만을 묘사, 관념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 시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로의 '즐거운 선택'

시는 인류가 가진 모국어"라고 고백한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와 마찬가지로 시 치료가 있는데 사람의 고통을 치료한다고 얘기한다.

"소설가들도 자신의 소설을 쓰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시집을 꺼내서 시 몇 편을 읽고 실마리를 얻듯이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달랠주고 감성을 일깨우

는 매개체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다고 느낄 때 시 한편이 우리의 심신을 위로하는 것처럼 말예요."

그런 그녀에게 모든 사람이 시인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가슴에 품은 것을 글로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녀에게 있어 시인이란 늘 언어를 품고 마음속 무엇인가를 언어로 형상화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제주대 대학원과 함께 문화대학을 재학 중인 그녀가 바라보는 목표는 무엇일까.

"제주어를 비롯한 제주의 다양한 풍속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 제주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제가 몸담고 있는 제주, 말과 사람에 관련된 시를 계속해서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어를 잘 알릴 수 있는 시를 선보이고 싶어요."

'시인은 만들어지거나 발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발견되는 존재. 다시 말해 원래 있는 존재'라는 말처럼 그녀의 삶 또한 그런 길을 위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싶다.

부천우 기자

바라만 봐도 시옷은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다는 것
바라만 봐도

사람을 살리는 것들은 시옷 안에 다 들어
있지

산 세 숲 숨 산소 수소 샘물 상설시장
십자가 성당 사(寺)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식물처럼 자라고 있지

사람이 선하게 사는 세상에서
바라만 봐도
시옷은.

장한라 시인의 <즐거운 선택>中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동문칼럼



강경민
행정학과 82학번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학4학년 때 입사원서를 쓸 때 인생의 좌우명을 쓰라는 칸이 있었다. 한동안 고민했다. 내가 대학 4학년을 다니면서 인생의 좌우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큰아들은 대학 4학년, 둘째는 올해 대학 졸업하여 공군소위로서 조종사 훈련을 하고 있다. 나는 2012년 2월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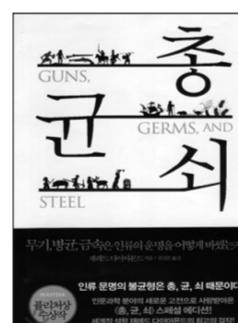
2014년 5월에 그동안 불규칙한 생활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모양은 키 167cm에 몸무게 86kg 허리둘레 38인치의 원형이었다. 먼저 건강하고 날씬한 나의 모습을 새겼다. 그 후 매일 걷기 운동을 했다. 한여름에도 땀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걸었고 한겨울도 걸었다. 내 핸디캡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감내하리라. 그렇게 시도한 것이 지금은 71kg, 31인치이다.

오늘도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하여 달리는 자동차를 본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 빨리 가라, 나는 걸어서 도착할게'. '편히 가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보람된지가 중요한 것 아닐까!' 주위에 잘나간다는 사람들도 많다. 돈을 많이 버 사람들도 있고 골프를 즐기며 편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복지수는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정말 짧은 시간에 골곡을 경험하였기에.

단언하지만 누구나 삶의 굴곡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의 '나'가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다. 지금의 '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학생들에게도 늘 말한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환경이 바뀔 때를 대비하여 진인사(盡人事)하고 대천명(待天命)하라'고 말이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권하고 싶은 책

<총, 군, 쇠> : 왜 유라시아가 세계를 지배했는가?



총, 군, 쇠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수로 재직 중인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총, 군, 쇠>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답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 경제적 힘을 얻은 반면,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그러한 힘의 요소들을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이들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고 논의를 주도해온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그 의미를 비교적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통합(統合)은 둘 이상을 하나로 모아 다스리다는 뜻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과정이며, 융합(融合)은 둘 이상이 녹아서 원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학적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말한다. 그럼 통합은? 통섭(統攝)은 원래 구성성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성을 잘 섞어 새로운 실체를 탄생시키는 것, 곧 생물학적 합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념 정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논의가 모두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진리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좁은 분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학문통섭의 사례를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 성과 중 하나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군, 쇠>를 들 수 있다. 최종 병하기 이후 지난 1만년 동안 왜 인류 문명의 발전은 각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는가? 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서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이 지역의 민족들이 여타 대륙을 지배해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해 현재 UCLA 지리학과 교

대륙들은 대개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데 반해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 방향을 축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이이다. 어느 한 지역에서 길들여진 동식물 종이 유사한 위도 상에서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쉽게 퍼져나갈 수 있지만, 위도에 큰 차이가 나면 기후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 따라서 저자는 만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단의 원주민과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선사시대 때부터 거주 지역이 바뀌었다면 오늘날의 문명화 양태는 정반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1997년 풀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문명의 불평등 기원을 다룬 획기적인 명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수년 동안 대학생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문명의 불평등 원인을 생물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어 학문 융복합 혹은 통섭의 훌륭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학문의 경계를 벗어나 진리의 참 모습에 보다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경험적 수준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학부생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이 지닌 중요한 미덕 중 하나라 하겠다.

손명철 지리교육전공 교수

<4면에서 계속>

체육학부 레저스포츠전공
김형석 손건영 이원택 염소현 김정수

전산통계학과
양영심 고재영 강복심

공과대학

식품생명공학과
강유미

기계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과
박현우 부창훈 홍광표 고혁진 김영호 이동환 김희재

기계시스템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강동훈 고병수 김성진

통신공학과

박경준 오민선 임용 박용담 송승률 김효정 강문관

에너지공학과

강정현 진영득 김정원 심수창 최지원 현수연

컴퓨터공학과

부경환 조성범 김성주 이기진 이상준 이진형 현광민 김동언 김용대 향뢰

전자공학과

홍종현 임수영 황지연 김위 송원선

전기공학과

이동훈 송현언 최한수 허수철 문경환 김영천 고석범 박성환 강병규 고재우 강수진 김도경 박성필 김민철 주선광

생명화학공학과

임새미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김봉현 김현상 강유현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양혁준 이관후 김유미 양수진 정리위안 소택동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김규정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박진서 이지승 이하늘 정민혜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김대권 이나현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김승배 박길주 김상민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강은혜

음악학부 성악전공

김창완

미술학부 조소전공

정다혜

음악학부 피아노전공

이지연

음악학부 관·현악전공

변상이

박사 25명

석사 229명

학사 451명

총 705명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안내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5년 8월 25일

(화) 11:00

□ 장 소 : 국제언어문화센터
아라뮤즈홀

2. 학위증서(졸업증서)수여

학사학위증서(졸업증서)는 학위수여
식이 끝난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학
과장이 수여합니다.

>> 칠성통 문화의 거리 기획

텅 빈 거리,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문화의 거리를 뒤덮은 암울한 회색빛만

사람들 외면 속에 쓸쓸한 칠성통…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학생들은 어디를 찾을까. 대학생은 물론 상당수 청소년들이 제주 일도동에 위치한 '칠성통'을 방문하고 있다. 젊은 청춘들에게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상점들이 즐비해 있으며 제주의 이색적인 맛을 체험할 수 있는 맛집들이 존재하다. 근처에는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방문한 동문시장이 있어 제주 전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서울의 충무로 못지 않게 영화 속 테마가 잘 스며들어있어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한 장소다. 그러나 누군가 칠성통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것일까. 현재 포크레인과 많은 인부들이 시멘트와 뿐만 아니라 칠성통을 뚫고 있다. 영문도 모른채 파괴당하는 칠성통을 기자가 믿착 취재하기로 결심했다. <편집자주>

◇**지중화 공사란 무엇인가**

"똑딱 똑딱". 지하도에서 올라온 뒤 칠성통 입구에 진입하기 전 들리는 소리다. 입구에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구두 브랜드 '금강제화' 대신 포크레인이나 연신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반긴다. 커다란 팻말이 서있다. 가까이 다가가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 사업'에 관해 적혀 있었다. 반복해서 글을 정독했으나 완벽히 이해가 되진 않았다. 공사 현장을 카메라 셔터로 몇 차례 누른 뒤 근처 커피숍에서 제주시청 건설과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5분 낯짓으로 짧았으나 가셨던 궁금증은 모두 해소 됐다.

우선, 지중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지상에 있는 전선들을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다. 또한 바닥 포장 공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도청의 큰 야망도 들을 수 있었다. 건설과 소속 박종영씨는 "제주의 본 산업인 칠성통이 최근 들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분위기 반전과 고객 유치의 두 마리 토키를 잡겠다"고 말했다. 그럴듯한 논리에 통화 도중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커피숍 창가에서 보이는 파격적인 공사는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삭막한 제주도 대표 쇼핑거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확실히 칠성통의 훤칠한 외모를 망치고 있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폭 쫓게 위치한 시멘

트산과 벽돌성은 칠성통을 회색빛으로 물들이고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도로는 피해져 있어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큰 방해가 됐다. 무한한 서비스를 지원해 고객을 유치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나 마음이 답답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일부들은 찾은 휴식을 취했고 대부분이 담배를 헤워 온 거리가 흡연구역 같았다.

거리 안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자마다 입구는 그나마 양반이라는 것을 느꼈다. 패션 브랜드 빈풀 앞 사거리에는 싱크홀이 뚫린 마냥 큰 구멍이 있었다. 안전바로 막아놨지만 유통불통한 도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진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았다. 상상만 했는데도 아찔했다. 카메라를 들고 수첩에 열심히 메모를 하다 보니 어느 관광객 무리가 말을 걸어 왔다. 대학생 기자입장을 밝히고 그들의 말에 집중했다. 올산에서 온 이들은 제주도가 좋아 매년 휴가철마다 방문한다고 말했다. 특히 탑동 바다가 너무 좋다보니 항상 칠성통을 경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는 칠성통으로 바로 오지 않고 탑동에 들린 뒤 거리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흥미롭게 경청하다가 깜짝 놀랐다. 이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이들은 제주에 오기 전, SNS를 통해 칠성통이 공사하는 현장을 먼저 봤다고 말했다. 또한 수많은 네티즌들의 칠성통을 향한 비아냥거림에 자신도 모르게 꺼려졌다는 말을 끼냈다. 충격적이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사가 오히려 관광객들을 칠성통 밖으로 내쫓고 있는 실정이었다. 생각해보니 취재를 시작하면서 약 2시간동안 기념사진을 활용하는 관광객들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내가 관광객의 입장이었어도 시멘트와 온갖 벽돌로 무장된 공사 현장을 기념사진에 담진 않았을 것이다. 쓸쓸한 대화를 나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무거운 마음을 누르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칠성통 곳곳을 찍기 시작했다.

◇**상인들 불만 극에 달하다**

갑자기 칠성통 안으로 경찰차 한 대가 진입했다.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공권력의 대표가 몸소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일반적인 대화보다 언성을 높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들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죽어가는 테마거리, 먼저 해결해야 할 점**

그렇다면 공사로 인한 상업 활동, 보행자 이동 방해 등 외부적인 문제만 칠성통 거리에 자리 잡고 있을까. 불행하게도 정답은 'No'

이 전시되어 있었다. 남자가 "이건 사람발자국 화석을 본떠서 만든 복제본이고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택시 아저씨의 그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상황을 보니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듯 했다. "구경 더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아시아 최초 사람발자국 화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시관이라는 곳은 초라하고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명색히 문화재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고 안타까웠다. 사진을 몇 장 찍고 밖으로 나갔다.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줄거리**

소설가 영빈, 동화 일러스트 작가 해연, 재일 한국인 히데코. 이 세 사람의 미묘하고 위태로운 관계와 그들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 취재자 제주도를 방문한 영빈은 사람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제주도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제주에서 그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편집자주>

곧 통나무로 지어놓은 관리사무소가 눈에 들어왔다. 급조된 듯한 통나무집. 관리소 문을 두드리니 한 남자가 나왔다. 사람발자국 화석을 보러 왔다하니 옆에 있는 통나무집으로 안내했다. 통나무집에는 화석 복제본



사태는 보기보다 심각했다. 주먹다짐이 일어날 듯 서로가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경찰들은 이를 중재하느라 진을 빼다. 주변 횟집에서 구경하는 어르신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사건은 공사를 진행하는 관리자와 상인의 갈등으로 발생했다. 상인은 가게 앞 도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해져 있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리자는 자신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피해가 지속되는 점은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서로간의 입장이 있어 잘못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몇 번이고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상인의 진심어린 목소리는 칠성통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억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도는 무슨 방법을 강구했는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나 필요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다. 수소문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도지사에게 바란다'라는 메뉴가 눈에 띄었다. 게시판에 녹아있는 도민들의 않는 소리는 꽤 심각했다. 지중화 사업에 관해 글을 남긴 도민들은 대부분 상인이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공사 때문에 매출에 급격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가운데, 어떤 도민은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와 메르스 등 악재들이 겹쳐 살아남기 매우 힘들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중답자는 공사를 추진하던 중 유물들이 발견돼 지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표본조사 결과를 통해 옛 집터, 우물터 등이 나타났다는 주장이었다.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상업 활동에 피해를 최소하겠다는 답변을 남겼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문제다.

몇몇 도민은 도로 바닥 포장 공사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바닥 포장 공사가 숙련된 수준의 기술로 시공돼가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표했다. 바닥재 사이의 간격과 시설물들의 모양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봐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계속해서 칠성통의 상인들이 점검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형식적이었다. 사업비 약 43억원을 투입해 시행되는 공사가 물거품이 될법한 뉘앙스를 풍기는 답변이었다.

◇**오랜 공사 속에 피폐해진**

문화의 거리, 칠성통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도청과 상인들 간의

소통과 협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보인다."



사람들의 빌길 없는 텅 빈 거리와 행하기만 한 상가. 흉물스러운 공사 자재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관광객들의 빙자리를 메우고 있다(위). 사람들의 통행로를 틀어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과 공사 자재로 인해 불편을 호소 하는 관광객들(아래).

다. 거리 한쪽으로 오래 걷다 보면 영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포스터가 벽과 바닥에 붙어 있다. 그러나 주변은 회색빛의 컨테이너 벽이 거리를 둘러싸고 있고 폐허가 된 상가들도 보였다.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포스터도 걸려 있었다. 몇몇 가로등은 불빛이 약하거나 고장이 나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불법주차문제도 심각했다. 골목 한가운데를 막는 자동차로 인해 보행자들의 이동에 큰 방해가 됐다. 테마 거리 근처의 상권들은 유동인구가 적어 상업 활동이 어려운데, 불법 주차 때문에 그 피해가 더해진 것 같았다. 불현듯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을 보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해 빌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종무로처럼 영화와 함께하는 테마의 거리로 첫 빌길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를 눈 앞에서 목격하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다.

평소 칠성통에 자주 온다. 2013년 2월, 학생 신분으로 제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방문

했던 최초 관광지라서 애착이 간다. 혼자 동문시장에서 전통음식을 먹고 사고 싶은 옷, 신발들을 마음속에서만 구매하는 기분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렇게 내게 있어 특별한 거리가 공사로 인해 훼손돼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편으로 나도 이렇게 심란한데 이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은 어떤 심정일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다. 도청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름다움을 조성한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관광 홍보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나이 온다고, 상인들이 안내심을 가져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 또한 당사자가 아니기에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청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변 상인들에게 합당한 정책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차 없는 거리'가 '상점 없는 거리'로 변질될 수 있다.

글/사진=백승규 기자

>> 소설 속으로의 여행 - <윤대녕 저>,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의 사람 발자국 유적지

상처 입은 자아, 치유의 바다를 향해…

독서의 계절이 어디 따로 있을까? 그곳에 책이 있고 당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방학동안 여행은 커녕 책 한 권도 읽지 못한 학우들을 위해 준비했다.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량 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 기획. 허나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한동안 책을 놓아두었던 손에 다시 책을 쥐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순간, 이미 책상 앞이 아닌 소설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을까?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해나가는 영빈의 제주도 생활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여 한다. 어름이 끝나기 전에 눈이 시리도록 푸른 제주의 바다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을 걸으며 소설 속 영빈처럼 제주의 바닷바람을 느끼고 싶다면 자, 이제 같이 읽자. 여행이 시작된다.

<편집자주>

◇<호랑이는 왜 바다로 갔나> 줄거리

소설가 영빈, 동화 일러스트 작가 해연, 재일 한국인 히데코. 이 세 사람의 미묘하고 위태로운 관계와 그들의 속사정에 대한 이야기. 취재자 제주도를 방문한 영빈은 사람발자국 화석 산지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고 제주도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제주에서 그는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계리 해안도로 - 사람 발자국 화석 산지**

화석이 발견된 곳은 산방산과 송악산 중간의 해안도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 앞에 통나무로 급조한 '사람 발자국 화석 관리사무소'가 세워져 있었다. - 책 내용 중 p.69



소설 속 영빈이 넘었던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있는 울타리 너머 사람발자국 화석. 바다. 형제섬이 보인다.

이전시되어 있었다. 남자가 "이건 사람발자국 화석을 본떠서 만든 복제본이고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택시 아저씨의 그 표정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다. 상황을 보니 사람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듯 했다. "구경 더 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아시아 최초 사람발자국 화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시관이라는 곳은 초라하고 허술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명색히 문화재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고 안타까웠다.

- 책 내용 중 p.70

영빈은 밤나무 집 맞은편에 있었다.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영빈은 미리 준비한 랜턴을 들고 접근금지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순간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영빈의 온몸을 휘감았다. (중략)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열망에 휩싸여, 그것은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영빈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 책 내용 중 p.70

영빈은 밤나무 집 밖이며 어쩐 전율을 느꼈다. 그때 그 전율이 영빈을 제주로 내려오게 이끌었다. 울타리 너머 밤나무 집 맞은편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자는 그를 보고 막힌 길이라고 생각해 빌길을 돌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종무로처럼 영화와 함께하는 테마의 거리로 첫 빌길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참담한 결과를 눈 앞에서 목격하니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다.

영빈은 출입금지 표지판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 책 내용 중 p.72



한 공간적 배경을 넘어 치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빈은 제주의 바다에서 그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질 때가 있다. 그런 아마도 그 깊이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바다의 속성 때문이 아닐까. 바다는 너무 거대해서 자신의 고민 따위는 넓고 깊은 바다에 다 떨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 소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번 여름, 바다는 커녕 책 한 권조차 읽지 않은 것은 사실은 나였다는 것을 자각했다. 아직도 형제섬이 떠 있던 사계리 바닷가가 내 멀리 속에 맴돌고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빈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나보다. 바다는 어쩌면 사람들의 고민을 다 들여주느라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 아닐까. 지금 수많은 고민들로 머리가 복잡한 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여름이 가기 전에 어서 바다에 떠나라고. 김정희 수습기자

◇**바다, 치유의 공간**

영빈: "나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바다가 그 일을 해주고 있어야군" - 책 내용 중 p.330

"호랑이는 상처 입고 몸부림치는 자기 환영에 불과하니까" - 책 내용 중 p.332

영빈의 눈에 보이는 호랑이의 정체는 상처 입은 자아였다. 이 소설에서 바다는 단순

교수시론

임동춘
중어중문학과 교수

“
희망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노력없이는
한낱 백일몽일뿐…
”

희망(希望) 그리고 백일몽(白日夢)

젊은이는 미래에 무엇인가 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들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해 묻곤한다. 나도 가끔 학생 상담에 임하면서 학생의 장래 희망을 묻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희망을 듣고 난 뒤, 나는 다시 묻는다. “그러면 너는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목표부답이나 머리를 굽적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한 학생이 상담 중에 자기는 올해 내로 HSK7급 이상을 따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올해 구체적으로 언제 시험이 있는지, 시험 장소는 어떤지, 1차시험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묻고 대답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머리를 굽적거리거나 말한 이런 종류의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 허망한 白日夢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운동장에서 높이뛰기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운동능력과 상관없이 높이 뛰어오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 골포스트를 잡기 위해 뛰어 오른다면

훨씬 높이 뛰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 ‘형언도필첩서’에 다음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

최홍국은 나리를 통틀어 글씨를 잘 쓰는 자였다. 일찍이 과거에 나아가 단안을 쓰다 한 글자를 얻었는데, 황희지의 글씨와 비슷하였다. 앉아서 종일 살펴보다 차마 버릴 수 없어 딥안지를 품고 집에 돌아와 버렸으니, 이는 마음 속에 득실을 두지 않았다고 이를 만한다. 이정은 어린 시절 러대에 올라 그림을 연습하고 있었다. 집에서 그가 있는 곳을 몰라 삼일이 지나서야 찾았는데, 그 부친이 노하여 매질을 하니 올면서도 그 눈물로 새를 그렸다 한다. 이는 그림에서 영육을 잊었다고 이를 만한다. 최산수는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 산속으로 들어가 매번 한 가락을 마치면 모래를 주워 나막신에 넣어, 그 모래가 나막신에 가득 차야만 돌아왔다. 일찍이 도적을 만나 그를 죽이려 하니, 바람에 의지해 노래를 불렀더니, 도적들이 감격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한다. 이는 생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이를 만한다.

연암 선생은 이 글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 무엇을 이르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조차도 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논어〉 이인편에 “朝聞道(조문도), 夕死可矣(석가사의)”라는 문장이 있다. “아침에 도를 깨닫았으면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글귀이다. 공자는 도대체 얼마나 그道를 깨닫고 싶었길래, 어느 순간 그道를 깨달았다면 그날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을까? 희망이란 이런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 심지어 목숨조차도 걸어야 만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방안에 대해 생각중이라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白日夢을 꾸고 있을 뿐이다.

희망의 완성은 목표 설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설

내 삶의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기념사를 쓰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는 겸손한 자세로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주어진 고마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많은 것을 기울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기울였는지 아는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능선과 평지, 계곡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며 가야하듯 어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않을 것이다. 과정 중에 곳곳에 숨겨진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더디더라도 즐겁게 가리”라고 격려해 주고 싶다.

졸업은 또 하나의 이별이며, 졸업하는 이들은 지금 까지의 공동체(학과, 학교)를 떠나게 된다. 떠나는 이들은 지금까지 함께 한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경든 선·후배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해어짐을 아쉬워하며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 일련의 행동들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감사, 그들과 함께 지어져 왔던 나의 삶의 일부에 대한 인정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회에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하고 삶을 한결 여유롭게 해 준다.

비록, 자신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작은 고깃배와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 결점들은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지배하게 된다. 타인과 사회는 언제나 실망스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흔히 우리는 내게 무엇이 이익이었나를 되짚어 보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의 불편한 마음과 불평이 아름다움과 선함의

대학 교육 이대로 좋은가

세월이 참 많이 바뀌었다. 수건 따로, 행주 따로, 걸레 따로, 하지만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수건에서 낡으면 행주로, 더 낡으면 걸레로 사용되다가 많아서 못쓰게 되면 연탄화덕 불문 마개나 불쏘시개가 되기도 하였다.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면 이상한 사람 혹은 지저분한 사람이 된다. 그렇다. 옛날엔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그 용도가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끝나 버린다.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옛날엔 자기 상황에 맞게 이것저것 해보면서 자신의 필요성을 찾아갔다. 그런데 요즘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는 목표를 가져라. 그게 있어야 성공한다. 딱 한 가지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틀 속에 갇혀 자란다. 이 틀은, 이 용도는 대학까지이다. 그러나 이 용도에 맞추어 틀이 완성된 사람은 상위 4%, 즉 수능 1등급들이고, 이들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뇌.섹.남의 시사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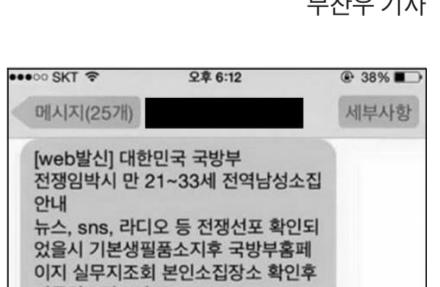
Hoax,

불안감 조성하는 가짜메시지…

요즘 메신저를 하다 보면 간혹 가짜 경보가 달린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인터넷 상에 올라온 메시지 하나가 화제가 됐다. “전쟁 임박 시, 만 21~33 세 전역 남성 소집 안내. 본인소집장소 확인 후 급급히 소집 요망.”이라는 메시지가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졌다. 북한군의 포격 사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발생한 일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에 국방부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근거없는 유언비어는 지난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 당시에도 각종 미디어에 유포되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 내부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이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 의 통신수단에 거짓 정보 또는 유언비어, 괴담 등을 실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용자들 속이거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훅스(Hoax)’라고 한다. 1988년에 처음 등장한 이 현상은 현재 신종 스미싱 형태로 전파되고 있다. 모바일과 SNS를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 스미싱 문자처럼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는 있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격자가 대량 유포하는 스미싱과 달리 사용자들이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전파한다. 신뢰도 있는 기관 발표를 사칭하거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크다. 장난으로 시작된 훙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회 혼란을 노리고 훙스를 만들어



유언비어 문자임.



북한군이 대남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일, SNS 상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유언비어.

독자기고

다문화멘토링, 함께 하실래요?

한미소
언론홍보학과 3

혜택 받는 대학생활

김봉년
지구해양과학과 3

지난 5월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에 참여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참여 대학생들이 다문화·탈북가정 출신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멘티 학교나 멘티 집에서 학습지도 및 멘토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별히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아니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고, 1년 동안 멘티(배움지기)와 함께 마음을 맞춰 활동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매년 4월이나 5월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다문화 멘토링 관련 공지가 게시된다. 성적증명서와 교수추천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관 3층 학생복지과에 제출해 학생부를 기다린 후 학생을 배정받고, 1년간 활동하는 형식이다.

먼저, 선발이 되면 다문화가정당선생님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나서 배정받은 배움지기와 함께 첫만남을 갖게 된다. 어색한 첫만남을 시작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앞으로 배움지기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 간단히 나눈다. 그리고 구체적인 만남이 이뤄질 계획이므로 배움지기가 가능한 시간과 나눔지기(멘토)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하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만남을 마무리한다. 본인의 경우 배움

지기가 평일에 학원을 다니다보니 주말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영어위주로 학습을 원해서 영어과목 관련 학습계획을 세웠고, 영화관람같은 문화생활을 자주 하기 힘들기에 한달에 한번 영화관람을 하고 감상문을 쓰는 시간을 계획해서 활동했다.

아직 활동 중반부이기에 어설픈 점도 많고, 교육학과 관련 학생보다는 계획적으로 학생을 학습시키진 못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을 하다보니 그동안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나로 인해 체험하게 한다는 것, 멘티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일반 멘토링과 달리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학습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문화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활동도 같이 권장되고 있어서 계획만 잘 세운다면 누구보다 알차고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도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 바로 다문화멘토링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멘토링을 통해 배움지기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와 사람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휴먼 네트워크를 체험할 기회를 학우분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학교에는 2가지 학생들이 있다. 학교의 혜택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두 부류의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 학교에서 해주는 건 많은데 꼭 몇몇 친구들만 얻어 가는 것 같아.”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며 안타까워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늘 보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농담 삼아 하는 말로 학교에 내는 등록금은 전체 학생의 10%만을 위해 쓰인다고 이야기한다. 혜택을 찾아 가는 10%는 학교에 내는 등록금보다 많은 것을 받아 간다.

얼마나 혜택을 받아 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필자의 사례를 들어 보면 교외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1년간 계좌로 입금된 현금만 1000만 원이 조금 넘어 간다. 물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한푼도 내지 않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증도 얻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요한 한 점은 이런 프로그램을 서울에서는 적게는 수십만원에 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지불해야만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런 프로그램만 잘 찾아 들어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돈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을 찾아 진행하면 된다. 우리학교에서 토의점수를 올리기만 해도 장학금을 준다. 과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학교에서 주는 혜택은 상당하지만 이것을 잘 알고 받아가는 학생들은 소수라는 점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10%에 들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행동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신청하라는 것이다. 대학생이 된 순간부터 누군가 입속에 밥을 떠 넘겨 주는 경우는 없다. 직접 찾아서 먹어야 한다. 혜택을 얻어 가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과 같이 혜택을 얻기 위해 움직이자는 것이다.

한 가지 놓치면 안되는 것은 이렇게 혜택을 받으며 사는 학생들이 모두 처음부터 잘 했던 것은 아니다. 2가지 분류인데 처음부터 열심히 하던 학생이거나 혹은 하나씩 하다보니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결론은 이 애기 하면 우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는 것에 지원해 보라는 것이다.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스스로를 보게 될 것이다.

졸업, 책과 여행으로 restart해요

책
/ 청춘의 시기에 공감하다



<졸업 : 설월화 살인 게임>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 현대문학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형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인 ‘졸업’은 형사가 되기 전, 가가 형사의 대학 시절과 그의 친구들이 졸업식을 앞두고 벌어진 이야기를 그려낸 청춘 미스터리다. 과거와 이별하고 불안한 미래를 코 앞에 둔, 마치 취업도 연애도 온통 고민 투성이 훈련의 시기인 졸업식을 앞둔 우리의 현실을 자화상처럼 그려냈다. 청춘 자체가 불안정하고 미스터리 투성이니 추리물과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린다.

책의 내용은 보통의 추리물과 똑같다.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가 죽고 남겨진 단서를 통해 범인을 잡는다’라는 레퍼토리를 따리간다. 조금 다른 점은 대학 졸업을 앞둔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이다. 추리 소설을 읽는 가장 큰 재미는 ‘who done it? why done it? how done it?’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

인이 누구고, 왜 범행이 일어나며, 어떻게 범행이 일어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추리 소설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3가지를 가지고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이야기의 시작은 한 명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7명의 T대학 졸업반 친구들.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쇼코가 졸업을 몇 달 남겨두고 자신의 원룸에서 시체로 발견된다. 의문스러운 죽음 앞에서, 친구들은 바쁜 취업 준비 틈틈이 쇼코가 죽은 이유를 캐고 다닌다. 하지만 탈살이라면 밀실인 쇼코의 원룸을 드나들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자살이라고 해도 쇼코의 연인인 도도조자 모르는 자살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진척 없이 시간만 흐르던 어느 날, 남은 친구들은 은사인 미나미사와 선생님 댁에서

부찬우 기자

여행
/ 새로운 만남 속 현재를 즐기다

“열심히 꿈을 위한 달려온 당신, 떠나라!” 세상이 정해 놓은 속도와 규격에 꼭 모든 사람이 몸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다. 반향 혹은 객기라고 불러도 좋을 청춘의 흐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9월은 바닷가를 여행 가기에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계곡을 찾아가기도 철이 지난 것 같은 기분이다. 여름과 가을의 중간



베네치아의 푸른 강 위에 많은 관광객들이 곤돌라를 타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있다.

독한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고 어른 흉내부터 내면 뒤늦게 부작용이 생기기 십상. 앞으로의 고민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 잠시만의 일탈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국제 유가 하락으로 9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의 모든 노선 유류 할증료도 ‘0원’이 되니 떠나기에 절호의 기회다. 새로운 만남과 색다른 경험이

와 같다. 캔버스 안 수채화와 같은 종세풍의 건물들이 줄을 서 있고 그 사이로 짙푸른 하늘과 거미줄처럼 마을을 따라 흐르는 수로가 아름다운 곳. 특별한 여행 계획 없더라도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거리를 가득 채운 불거리와 활기찬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건 어쩌면 순식간일 것이다. 수로 위를 달리는 곤돌라와 바포레토(수상버스)가 차를 대신하고 있고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표현한 산 마르코 광장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9월의 베네치아가 더 특별한 이유는 9월에만 열리는 축제들이 있어서다. 훌수 해의 6~10월에 펼쳐지는 세계 3개 비엔날레로 불리는 국제 미술전,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열린다. 올해는 ‘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베네치아 전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다른 축제로는 1932년에 시작돼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매년 9월 초에 열리는 베네치아 국제영화제가 있다. 올해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고 한다. 베네치아 속에서 열리는 문화의 향연 속에 몸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

부찬우 기자

생명공학실험서



| 김인중·이효연·강홍규·권용익·고석민·문경용·부경환·
선현진·송인자·윤창호| 199페이지 | 17,000원 |

제주대학교 애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감귤분자유종실험’과 제주대학교 애대원에 산업연구소에서 ‘GMO 실험서’가 발간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서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실험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각 생명공학실험에 따른 목적, 적용, 원리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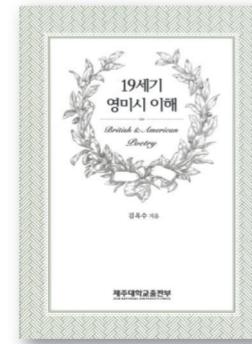
이 도서를 통해 학부과정에서도 분자생물학실험 등의 실험수업에 쉽게 적용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였고, 대학원 과정이나 연구원들도 참고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9세기 영미시 이해

| 김옥수 지음 | 311페이지 | 15,000원 |

19세기 영미시 이론서이다. 19세기 영미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대조해가며 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주제 및 시의 기법 등을 학습자들이 보다 철저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편들마다 시인의 생애와 어구해설, 그리고 줄거리, 시의 형식 등을 제시하였다.



동양 도덕 교육론

| 강봉수 지음 | 422페이지 | 20,000원 |

그동안 저자가 연구해온 동양전통의 윤리학에 바탕을 둔 도덕교육의 패러다임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서 가정하는 동양전통의 도덕교육론 패러다임의 갈래는 세가지이다. 자율적 도덕발달론, 도덕적 사회화론, 자발적 도덕직관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래에 따라 이 책에서는 공자, 노자, 맹자, 주자, 토계, 율곡, 왕양명 등의 윤리학과 도덕교육론을 탐색하고 있다.



시민 교육의 성찰

| 변종현 지음 | 390페이지 | 20,000원 |

근대 이후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성립된 시티즌십의 의미와 내용이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시민임’ 혹은 ‘시민됨’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시민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시티즌십’에 관한 새로운 성찰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교육의 성찰』은 시민교육에 관한 필자의 그 동안의 논의 결과들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이제 또 새로운 세상으로의 주민으로서 시작을 앞두고 있다. 그 전에 그 동안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거나 다음의 책을 친구 삼으면 어떨까.

<편집자 주>